

200자 안내

수레바퀴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김석환 옮김

인도태생의 성자로 불리우는 저자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삶의 진리와 서양의 신비주의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강의한 내용을 모은 책. 헤라클레이토스를 “내가 사랑한 유일한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 강의록에서 삶의 지혜로서의 ‘숨은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화만이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사상에 대한 분석이 이 책의 골자.

기린원/A5신/288면/4500원

미래설계와 목표관리

유성은 지음

수많은 사례를 통한 개인과 단체의 비전 설정방법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개인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관리와 단체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등이 실려 있다. ‘행동계획 양식’ ‘스케줄 양식’ 등 실제로 효용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룬 점이 특색 있어, 직장인 등의 실용서로 읽힐 만한 책.

생활지혜사/A5신/248면/4800원

그대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김성수·전승진 지음

현재 대한항공의 운항정비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성수씨가 문학적 관심과 일상의 편리를 소재로 쓴 산문 70여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이 가운데 20여편은 그의 부인 작품. 만학으로 대학생부부이기도 한 저자들은 보통사람들의 세상살이와 사랑 등을 형식이나 문학적 완성도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글로 옮기고 있다.

문학출판공사/A5신/280면/3800원

유리구두를 신지 않은 신데렐라

방귀희 지음

방송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그늘을 속속들이 밝힌 장편소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자유, 짚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했던 한 여인의 ‘짓눌린 상황’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이 소설을 쓴 작가는, 서울장애인올림픽 공식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중이다.

대학출판사/A5신/342면/4000원

더블/더블

리차드슨 편저 / 박철우 옮김

지난 87년 미국·일본 등지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책은, 미국의 미스터리작가가 본신에 관한 소설만을 모아 엮은 것. 영국 작가 루이스 렌델의 「분신」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소설가 톤마조 란돌피의 「고골리의 아내」 등 13편의 중 단편 소설을 통해 벽찬 세상살이로 차츰 자신의 모습을 잊어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려보게 한다.

국일문학사/A5신/260면/4000원

부처님이 뭐 복장수니?

성열 지음

강남포교원장이며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스님이 일반 불자대중들이 신앙생활을 접점해 볼 수 있도록 꾸민 책. 현재 진보적 불교이론의 학습과 실천운동이 일고 있지만, 기복불교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탈기복 불교 불교적 합리주의 쟁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대정신/A5신/232면/4000원

혁命家의 아내

이광수 지음

춘원의 명작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출간된 이 책은, 「群像」 3부작으로 표제작과 「사랑의 다각형」「삼봉이네 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가 본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을 그려보자는 생각이었다”고 춘원은 서문에 적고 있다. 성적 폐락, 배금주의 현실폭로와 30년대 현실의 좌절, 그리고 식민지의 처참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배어 있는 3편의 단편을 제공해준다.

우신사/A5신/372면/4500원

대즐 (1~3)

쥬디스 골드 지음 / 바다저작권회사 옮김

베스트셀러 소설 「신즈」로 국내독자들에게도 친숙한 미국여류작가의 장편소설로, 삼대에 걸친 여배우 센다·타마라·달리아가 부와 권력,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 겪는 소용돌이를 그린 작품. 제정 러시아의 하층계급으로부터 출발해 유명배우가 된 센다, 어머니의 배려로 미국으로 건너가 할리우드의 대스타로 발돋움

하는 타마라, 자신을 납치한 아랍인 테러리스트를 사랑하게 되는 달리아가 펼치는 인생역정이 읽은 재미를 한껏 선사한다.

세계/A5신/각 350면 내외/각 5000원

어린이 병원 1

이혜원 지음 / 김충원 그림

몸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창작동화. 모두 3권으로 기획된 가운데 첫째권으로 출판된 이 책은 의학상식을 키워주는 동화로 학습적인 면과 동시에 재미도 곁들여져 있다. 신체 구조의 신비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가정상비약 등을 소개한 의학동화란 점이 이 책의 특징.

진선출판사/A5신/224면/3500원

어느 공무원의 자화상

김종박 지음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수필집. 공직생활 틈틈이 썼던 글을 모은 이 책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누리와 한해’ 2부는 ‘학창시절’ 3부는 ‘고시시절’ 4부는 ‘공직생활’ 가족과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푸근한 사랑과 꿈많던 학창시절,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과 공직생활을 통해 얻고 잊은 것들에 관한 단장들이 깔끔한 문장으로 옮겨졌다.

천지/A5신/248면/4200원

좋은 시 '92 삶과 꿈의 앤솔러지

김춘수 외 엮음

지난 91년 한해동안 각종 지면을 통해 국내에서 발표됐던 약 2천편의 시 가운데 4명의 편찬 위원(김춘수, 이홍우, 정진규, 조정권)이 263명의 310편의 시를 선정해 한권의 책에 모은 것. 최근 갑자기 늘어난 지면에 한해에 무려 수천편씩 쏟아지는 시의 홍수시대에 믿을 만한 여파기를 거친 작품들을 가려 읽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삶과꿈/A5신/382면/8000원

이혼이야기

A. 알바레즈 지음 / 심정인 옮김

「자살의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저자의 대표적 에세이. 당사자들에게는 어쨌든 특별한 사건인 이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실은 이혼보고서인 이 책은, 여러 각도에서의 이혼에 대한 탐구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12개의 각장에서 개별적인 인물과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이혼경험도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명경/A5신/332면/5000원

견공 네로의 사랑찾기...

모리스 드누지에르 지음 / 명희진 옮김

프랑스작가가 개를 소재로 쓴 장편소설.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외롭고 따분한 일상을 사는 독신남자가 우연히 말썽 많은 개 네로를 떠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유머러스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장난꾸러기 개 네로는 웰릭스의 만남으로 의젓한 애견이 되고, 침잠해 있던 웰릭스는 네로의 말썽탓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활발한 성격으로 변해간다는 게 줄거리.

디자인하우스/A5신/192면/4000원

그 계곡에 두고온 남자

챈 폴리트 지음 / 유정희 옮김

「바늘구멍」의 작가가 내전중인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스릴러물. 사랑하는 남자 엘리스가 CIA요원임을 알게된 제인은 의사인 장 피에르와 결혼해 아프가니스탄의 반소개릴라들과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KGB요원으로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 제인은 다시 옛애인인 엘리스와 만나는데….

예하/A5신/424면/5300원

マイ크로 결사대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 이동민 옮김

「환상여행」이 원제인 이 책은 러시아태생의 미국 물리학자이자 SF소설가인 작가의 출세작으로 지구밖의 우주가 아닌 소우주인 인체내 신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 베네스박사는 인간을 마이크로 크기로 축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지만, 교통사고로 뇌를 손상당하게 된다. 세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의료진은 마이크로 크기로 축소돼 베네스박사의 체내로 투입되는데….

작가정신/A5신/304면/4300원

고독한 보헤미안

존 어빙 지음 / 이석주 옮김

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태어난 소설가 가프의 짧은 일생을 그린 소설. 선생과 창녀, 레슬러와 과격주의자들, 암살자와 강간범 등의 인물들이 등장해 충격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 작품은 그렇지만, 혐오스러움보다는 애정을 느끼게 한다.

천지서관/A5신/606면/7500원

의자와의 대화

헤르만 헤세 지음 / 신현철 옮김

「데미안」「유리알 유희」「지와 사랑」으로 기억되는 작가의 우화모음. 이 책에 실린 13편의 우화는 자연이 헤세에게 얼마나 중요한 창

작의 모티브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역자는 이 우화집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의 행동은 “모두 자연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자연과의 불화로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샘물처럼 반가운 이야기들이 실렸다.

책나무/A5신/264면/4300원

미드나이트

딘 R. 쿤즈 지음 / 조석진 옮김

과학문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회병폐현상을 그린 탐정소설. 뉴웨이브 테크놀로지회사의 쉐대크박사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인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주민들에게 이상한 약물을 투여해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필연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은 인간성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고려원/A5신/464면/5500원

살림의 상상력

이정희 지음

현재 한국신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가 히브리성서를 민중신학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한 저서. 권력에 의해 오염된 사람들의 말을 성서에서 찾아 읽게해주는 이 책의 2,3부에는 ‘살림의 그리스도교 문화’ 창조의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저자가 이런 작업을 위해 신학의 인접학문을 적절히 이용한 점이 돋보인다.

다산글방/A5신/318면/6000원

서양화 감상법

오광수 지음

중견 미술평론가가 서양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양미술의 정신은 어디에 기인하며, 어떤 구조와 기법 그리고 분류가 가능한가를 조목조목 따져 밝힌 개괄서. 서양화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요령 등을 대표적인 작품을 들어가면서 성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국내 화가들의 작품과도 비교함으로써 우리 서양화단의 현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대원사/A5신/128면/3500원

계간지

현대시사상 (92년 가을)

[시] 김춘수/박제천/홍영철/김혜순/박상순/김상미

[해외시] ▲장 타르디 외 ▲번역 및 해설(강금희)

[기획] ▲잭 길버트와 1965년의 미국시 풍경 (잭 길버트, 이승훈) ▲어떻게 시를 쓰는가(리

처드 에버하트, 윤호병) ▲시와 현대인의 정신 (콘래드 에이컨, 김경수) ▲답변(존 베리먼, 김경수) ▲개방된 우주를 향하여(로버트 던컨, 이만식) ▲나의 시작…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바(그레고리 코르소, 이만식) ▲시인은 스스로를 자극하다(제임스 딕키, 이만식) [논문] 「진달래꽃」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이재오, 이현호) [서평] 이진우/백인덕/신현철 고려원/A5신/212면/3500원

시와 시학 (92년 가을)

[시와 시인을 찾아서] 천상병 편
[특별연재] ▲수석영가 외(박두진) ▲시로 쓰는 자서전(조병화)
[신연재] 시와 신작수첩(고은)
[특집] 오늘의 깊은 시인들, 실험시계열(김영승/박상우/송재학/윤성근/이승하/하재봉/함민복) 80년대 모더니즘시의 전개(정한용)
[현대시인집중연구] ▲내가 만난 이시영(송기원) ▲문학적자전(이시영) ▲초록생명의 세계로 가는 멀고도 힘겨운 길(임우기) ▲이야기시와 단시의 긴장(최원식) ▲홀로 깊고 깊은 세계에서 부르는 이슬 맷힌 노래(전정구)
▲대표시선·연보·연구서지
[장애인문학 특집] ▲장애인문학의 현실과 발전방향(방귀희) ▲장애인 시선(김대원/김홍렬/김옥진/황지형/조임숙)
시와시학사/A5신/368면/5000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아름답다구요?



사보 제작시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아직도 대지 작업을 하시나요?

이젠 원고만 주시고 교정만 보세요.

저희 마루벌은 매킨토시 편집 전문업체로서 편집·출력·제판·인쇄·제본을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편집해서 출력소로 제판실로

인쇄소로 다니는 번거로움을 이제는 벗어 나서

앉아서 전화나 FAX로 OK를 놓으시고 책으로 받아 보세요.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창간하고자 하는 업체……

표지디자인이나 본문디자인을 바꾸고자 하시는분

기억 하셨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마루벌을 찾아 주세요.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디자인 / 표지·본문·광고·카다록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운문·교열·교정 / 완벽한 문장구성·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장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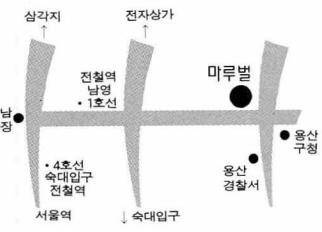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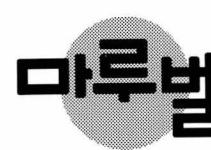
○편집 / 사보·잡지·단행본의 세밀한 편집!

○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매킨토시 출력서비스!

○제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월색 제판!

○인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고품질 인쇄!

○제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